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하는가?

How we treasure (and admire) the people who
acknowledge us! (Julie Morgenstern)

우리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존경할까!
(줄리 모건스턴)

오늘 아침 2호선 교대 전철역을 지나면서 벽에 줄지어 붙여져 있는 시가 적혀있는 액자들을 보았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게 한, 눈에 띄는 시가 있었습니다. 청당 민병문 시인의 “웃네 웃네”라는 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다음 스마트 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를 반복하여 읽다 보니, 며칠 전 읽었던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의 시간 및 공간관리 전문가이며 작가인 줄리 모건스턴 (Julie Morgenstern)이라는 사람의 “우리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존경할까!”라는 글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며 존중합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그분(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내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소 띤 얼굴, 웃음 짓고 있는 밝은 얼굴을 선사하는 것은 어떨까요?

청당 선생의 시구처럼 따스 가슴 주고받아 함께 하는 사람마다 함께 웃어 함께 하는 그 자리가 행복의 터전,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웃네 웃네

청당 민병문

웃네 웃네 내가 웃네
내가 웃어 그대 웃네
웃네 웃네 함께 웃네
예가 바로 천국이네
따스 가슴 오고 가네
오가는 삶 행복하네